

2017. 4. 26



안산국제
거리극축제

SINCE 2005

안산

국제거리극

축제



5.5(금) 5.6(토) 5.7(일)

사전프로그램 5.2(화) - 5.4(목)

안산문화광장 · 안산시 일대

안산시 시정소식지 | NO. 440

브라보안산

BRAVO ANSAN



안산시와 SNS로 친구맺기 [facebook.com/ansancity3](https://www.facebook.com/ansancity3) story.kakao.com/ch/ansancity blog.naver.com/cityansan [instagram.com/ansancity](https://www.instagram.com/ansancity)

발행일 2017년 4월 26일 발행인 안산시장 제종길 발행처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공보관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 Fax 031.481.3224 / E-mail bravo@diansan.net e 브라보안산 www.bravoansan.net



5월 5일 금요일(Friday)

“언제, 어디로 가야 가장 재밌고 즐거울까?!”



공식 개막작 ‘안안녕2017(An-nyong2017)’ • 복합장르
창작그룹 노니(Creative Group NONI) • 한국
8:30pm • 중앙역-안산문화광장(E Site) • 이동형 공연

바람의 숨바꼭질로 시작되는 놀이다. 함께 길을 걸으며 잠시 동안 일상으로부터 일탈을 꿈꾼다. 종이나비를 흔들며 함께 걷는 행렬과 그 사이를 스치는 아름다운 바람은 도시 일상 속 찰나의 환상을 보여준다. 길놀이가 가진 제의(祭儀)와 축제성의 조화에 중점을 두는 이 공연은 안산의 지역성을 더해 관객의 발걸음을 이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 2006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창작그룹 노니는 연희, 미술, 음악 세 그룹으로 나눠 각자 개성을 살린 다채로운 방식으로 활동한다. ‘꼭두’, ‘도깨비불 린:燐’, ‘바람노리’, ‘1+1=추락樂남매’, ‘몽키 · 쓰’, ‘신호유희’ 등의 작품을 창작했다.

거리예술플랫폼 ‘잡온론(Job On Loan)’ • 연극
우주마인드프로젝트(Would You Mind Project) • 한국
6:00pm • 안산문화광장(G Site)

출근시간 대 전철과 버스, 지하철역 풍경. 그저 스쳐 지나가는 곳

이지만 도시에서 매일 접하는 공간으로 하루하루 역사가 쌓여간다. 삶이 걸어진 길 위에서 우리는 오늘도 걷고 있다. 그렇게 걸으면서 생긴 질문을 관객과 함께 공유한다. 내일은 어떻게 걸으면 좋겠느냐고, 우주마인드프로젝트는 2명의 배우가 만나 결성했다. 지금까지 별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일들을 실눈을 뜨고, 팔을 걷어붙이고, 조금은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본다. 다양한 형태의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동시대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질문하는 유쾌한 시간을 가진다.

(A Clean-up Class Chief2)’ • 이동형 퍼포먼스
유상통프로젝트(Yusangtong Project) • 한국
3:30pm • 안산문화광장(C Site)

시작과 끝이 없는 실전 거리놀이! 지랄꾼(공연자)들이 쓰레기통을 메고 다니면서 주변을 청소한다. 그러다가 호루라기 소리가 나면 짧은 거리극과 놀이를 진행한다. 정해진 무대는 없다. 거리가 더러운 곳을 찾아다닌다. 분리수거는 필수다.

유상통 프로젝트는 2015년 서울문화재단 신당창작아카데미 프로젝트 작가로, 한 달간 중앙시장 축제에서 활동했다. 2016년 병신년 기원제 행사를 시작으로 총 12회 청소하는 거리퍼레이드를 진행했다.

INTERVIEW

“세계적인 축제의 완성은 참여에 달렸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대사 탤런트 박상원

Q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어떤가?’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2005년도에 시작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으며, 지역 예술문화 축제로는 유일하게 국가브랜드대상도 받은 정말 괜찮은 축제다. 내가 홍보대사가 돼서 정말 영광스럽다. 이 축제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Q 앞으로 활동계획은 • 우선 개막식과 폐막식, 그리고 여러 많은 축제들에 참여하겠다. 안산시민들과 좀 더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을 거리로 모을 수만 있다면 최선을 아닌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

Q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면 • 살기 좋

은 안산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국제거리극축제가 커다란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거리 축제를 넘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영감을 줄 수 있는 공연예술 축제로까지 발전하면 더욱 좋겠다고 생각한다.

Q 한 문장으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ooo이다” •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살기 좋은 안산을 나타내는 축제다”

Q 안산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 정말 좋은 축제를 만들고 있다. 세계적인 국제거리극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축제의 완성은 안산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에 달렸다. 참여가 완성이다.

5월 6일 토요일(Saturday)



한-영 교류프로젝트 (Official Programme of UK/Korea 2017-18) '푸쉬 Push' • 무용

컴퍼니 카멜레온(Company Chameleon) • 영국
4:30pm, 8:00pm • 안산문화광장(G Street)

육체적 터치와 감정적 울림에 대해 탐구한다. 어린 시절부터 두 예술가가 계속해서 이어온 서로 간의 대화다. 운동경기처럼 과격한 움직임 속에서도 중요한 감정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컴퍼니 카멜레온은 영국 맨체스터를 기반으로 한 무용 단체로,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투어한다. 앤서니 미션(Anthony Missen)과 케빈 에드워드 튜너(Kevin Edward Turner)가 트라포드 청소년 춤 씨어터에서 만난 90년대 이후 계속해서 듀엣으로 활동해왔다. 공연, 수업과 워크숍을 병행하며 전 세계 젊은 무용수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마사지사(Massager)' • 공동체 퍼포먼스

비주얼씨어터 꽃(Coot) • 한국
4:00pm • 흙플러스 안산고잔점 뒤편

종이처럼 부서지기 쉬운 당신, 당신을 안아주는 시간! 워크숍을 통해 거리의 마사지사로 분한 시민 공연자들이 또 다른 시민을 손님으로 맞이해 종이를 덮고 특별한 종이 마사지를 한다. 이윽고 몸 형태 그대로의 종이인간이 태어나며, 그 원형(原形)인 시민과 극적인 감정의 드라마를 펼친다. 그리고 바람, 물, 불 등에 의해 소멸을 맞이한다. 참여한 모두가 인간의 나약함을 안아주고, 그 의미를 되새긴다.

비주얼씨어터 꽃은 시각예술과 공연예술이 통합된 시각연극(Visual Theater)을 추구한다. 2000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공연예술학교, '더 스쿨 오브 비주얼 씨어터(The School of Visual Theater)'에 재학 중이던 이철성과 김진영이 결성해 만든 단체다.

공식 참가작 '안산순례길2017(Camino de Ansan2017)'

• 장소 특정극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 • 한국
1:00pm • 이동형 공연

관객과 예술가가 오랜 시간 무리를 이뤄 안산 곳곳을 함께 걷는다. 도시가 품고 있는 풍경, 일상에서 감지하지 못했던 감각, 도시와 사람들이 겪어온 역사를 새롭게 환기한다. 관객들은 도보 순례에 참여함으로써, 순례를 이끌거나 개입하는 다양한 퍼포먼스나 해프닝을 목격 또는 경험한다. '집단적 몸을 통한 성찰'을 기본 콘셉트로, 세월호 참사와 이후의 3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살아남은 사람들의 역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국가에 대해 성찰한다.

안산순례길개척위원회는 연극인, 설치 및 퍼포먼스 작가, 디자인그룹, 제작그룹, 시인, 기획자 등으로 구성된 다장르 예술가 콜렉티브다. 2015년 첫 <안산순례길> 프로젝트를 앞두고 결성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2주기 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점을 확장하며, 관객이동형/도시순례형 공연에 걸맞은 도시 공간, 공연 매체, 형식을 개발해왔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기억저장소 행사, 단원고 기억교실 이전 행사 등을 주도적으로 기획, 제작했다.



5월 7일 일요일(Sunday)

'엔게키퀘스트-안산 속 두 외딴 섬(ENGEKI QUEST-Two Solitary Islands in Ansan)' • 산책형 연극

후지와라 치카라(Fujiwara Chikara) • 일본
10:00am • 미디어라이브러리 앞 시작 • 이동형 공연

엔게키는 일본어로 '연극'을, 퀘스트는 '드래곤 퀘스트' 같은 모험 게임을 의미한다. 안산에 2개월가량 머물면서 안산 구석구석을 발로 걷고 시민을 만났던 작가가 쓴 책 '모험의 서'에 기록된 지시에 따라, 관객 각자가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안산이라는 도시를 자유롭게 산책하며 모험하는 '연극인 듯, 게임인 듯한' 프로젝트다. 축제 기간 중, 또는 축제 이후에도 '모험의 서'에 따라, 안산을 배경으로 한 연극을 각자 만들어볼 수 있다. 후지와라 치카라는 1977년 일본 고치현 출생으로, 현재 요코하마에 거주한다.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 기관지, 일본 세타가야 퍼블릭 씨어터의 '캐러머그' 등을 편집한다. 주로 공연예술에 관한 다양한 원고를 집필했다.

청(靑)자유구역#유스컬처 '속삭이듯(Murmur)' • 라이브페인팅, 음악

라비드 골드슈미츠 & 킴 모야(Ravid Goldschmidt & Quim Moya) • 스페인
7:30pm • 안산문화광장(A Site)

라이브 페인팅 쇼다. 신비한 소리를 내는 악기 '행드럼' 연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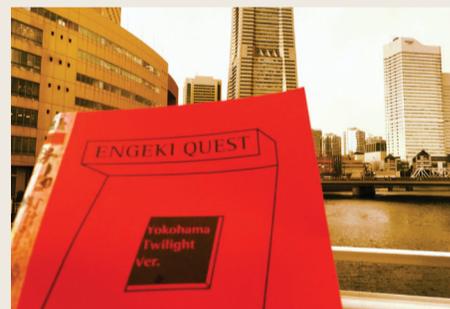
맞춰 커다란 캔버스 위에 빛을 활용한 그림을 그린다. 마치 우주 속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는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공연을 위해 김홍도의 송하맹호도에서 모티프를 얻은 그림도 선보일 예정이다. 스페인 피라 타레가 거리예술축제와의 교류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여했다.

음악과 미술,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을 해 온 라비드 골드슈미츠와 킴 모야가 만나 구성한 단체이다. 라비드는 신기한 소리를 내는 행드럼을 공연 소재로 사용하며, 킴은 무대에서 즉석으로 만들어내는 생동감 넘치는 페인팅을 선보인다.

폐막작 '길 위에서(TRK#1)' • 고공줄타기

노그래비티포몽스(Nogravity4monks) • 이탈리아
8:00pm • 안산문화광장(D Site)

줄타기 곡예사가 긴 줄을 건넌다. 기타와 비올라, 첼로, 고공 16m 철제 케이블까지, 총 21개 선들이 함께 진동한다. 음악이라기보다는 떨리는 선의 조합이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예술가의 몸짓은 인생에서 순간순간 느끼는 공포, 분노, 고독, 반항을 표현해 낸다. 독특한 사운드와 고공 줄타기가 함께 만들어내는 긴장감이 공간을 압도한다. 노그래비티포몽스는 2015년에 결성된 이탈리아 극단이다. 음향 감독, 조명디자이너, 극작가, 연출, 현악주자, 기타리스트, 고공 줄타기 퍼포머 등 다양한 예술가들로 구성돼 있다.



안산 거리예술 국제심포지엄

市,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사업 공모... 우수작품 선정 국내 최초 거리극 학술행사, 세계적 연출가·예술가 초청



안산시가 경기도 지역특화 마이스 공모사업에 응모한 '안산 거리예술 국제 심포지엄 (이하 심포지엄)'이 우수작품으로 선정됐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융·복합 산업을 말한다.

시는 지난 2003년부터 양적·질적으로 성장해 온 안산국제거리극축제를 바탕으로 국내외 거리예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거리 예술의 이슈를 논의하고 공유함으로써, 안산시를 아시아 거리예술 네트워크의 허브

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가지고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 심포지엄은 '축제의 30년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5월 3일부터 7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일원에서 열린다.

스페인 '피라 타레가 축제' 예술감독인 조르디 듀란(Jordi Duran), 영국 '스톡튼 국제 리버사이드 페스티벌'의 잔 도허티(Jan Doherty) 감독 등 해외 전문가를 포함, 국내 대학교수·예술가 3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기조연설, 유럽·아시아 거리 축제 토론, 축제 공간 스토리텔링 분석 등으로 진행되며 거리극 축제 현장에서 라운드 테이블, 공연 쇼케이스 관람, 지역예술대학 탐방 등의 다양한 행사로 이어진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대형 전시시설이나 호텔 등 인프라가 부족한 여건에서도 거리예술 문화콘텐츠, 국제행사로서의 성장가능성, 대부도라는 관광자원 연계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거리예술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마이스 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거리예술의 메카, 안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3434)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안산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위해 대응

55명 규모의 지원단 구성, 현장 돌며 맞춤형 정책 개발 공동 통근버스 운영... 300개사 800명 이용, "매우 만족"



안산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적극 대처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각 기관별·기업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수혜기업을 늘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도 집중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공동 통근버스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며, 기업체 내 '작은 도서관' 설치와 운영도 지원한다.

첫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기업인 단체와 대화 마당을 운영해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소통채널도 활성화한다. 특히, 안산상공회의소, 경기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현재 안산

에는 서부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경기서부기업인협의회 등 10개 단체에 총 1,733개의 회원사가 활동 중으로, 시는 월 1회 1~2개 단체와 대화 창구를 열어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또한 '기업사랑, 데이트'라는 제도를 통해 현장을 방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 모색, 사회적 기여 증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둘째,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SOS조직을 활용한다. 안산시와 유관기관 관계자 55명으로 구성된 '기업SOS지원단'을 통해 매일 1회 이상 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추진하며, 안산시 15개 부서 20명으로 구성된 '기업현장기동반'을 가동해 신속성을 높인다. 또한 2개 기관 이상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업SOS지원단과 합동으로 운영·해결할 방침이며, 기관이나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복합 기업애로 긴급 솔루션 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5개 이상의 기업이 자생적으로 조성된 공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의 애로사항을 처리하는 상담소도 운영한다.

셋째, 홍보를 통한 수혜기업 확대도 목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기업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나 인터넷,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기관 홈페이지와의 연동을 통해 신속한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넷째,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근버스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안산시와 시흥시는 45인승 버스를 각 5대씩 총 10대를 마련, 1일 300개 회사 약 800명의 이용객을 예상하고 있다. 안산역, 상록수역, 오이도역, 정왕역 등 4개 전철역과 연계해 1일 50회를 운행한다.

마지막으로, 기업체 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책 읽는 기업문화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기업지원과(031-481-2624)

안산그리너스FC... 지역사회 봉사활동 적극 전개

장애인 풋살팀 '격려'... 다문화 유소년 '지원'



안산그리너스FC가 4월 19일(수) 오후 3시, 상록수역 부근에서 지적 장애인 풋살팀 '상록아이돌FC'와 첫 만남을 가

졌다. '상록아이돌FC'는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풋살팀으로 지난해 3월 창단했다.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전문 풋살 선수 육성과 공식적인 지적장애인축구단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4월 13일, 안산그리너스FC는 사회공헌활동 후원 협약을 통해 선수육성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연승, 김명재 선수가 함께 해 축구 클리닉 활동을 전개했다. 유연승 선수는 "처음엔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려드릴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의 실력과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선 19일 오전 10시에는 와스타디움 3층 미디어룸에서 구세군 안산다문화센터(이하 구세군센터)와도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구세군센터는 안산에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이주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돕고 있는 단체로, 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이주 배경 유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지원과 지역 프로축구단 홈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업무 협력을 약속했다. 구세군센터의 최혁수 센터장은 "두 기관의 협력으로 안산그리너스FC에서 이주 배경 유소년 출신의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2017. 5. 9. 실시 대통령선거 문답풀이(2)

1.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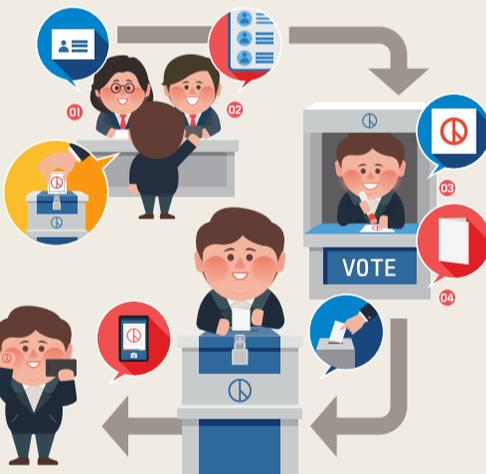
의 의결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한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이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3.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하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2.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 선거인은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다.

장애인 이동차량 활동보조인 지원 안내

제도 개요 | 사전투표기간 또는 선거일에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 제공하는 제도임.

지원 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신체장애인으로서 거주지와 해

당 투표소가 안산시 단원구 관내이며 장애인 이동차량 등의 지원을 사전에 신청한 사람

신청일

- 사전투표자 : 4. 24.(월) ~ 5. 3.(수) 18:00까지
- 선거일투표자 : 4. 28.(금) ~ 5. 8.(월) 18:00까지

신청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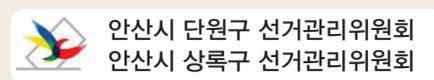
- 안산시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031-485-4518)
- 안산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031-413-4422)
- 안산도시공사 하모니콜택시(1588-5410)
- ※ 하모니콜택시는 1~2급만 이용 가능하며, 선거일 전

일까지 예약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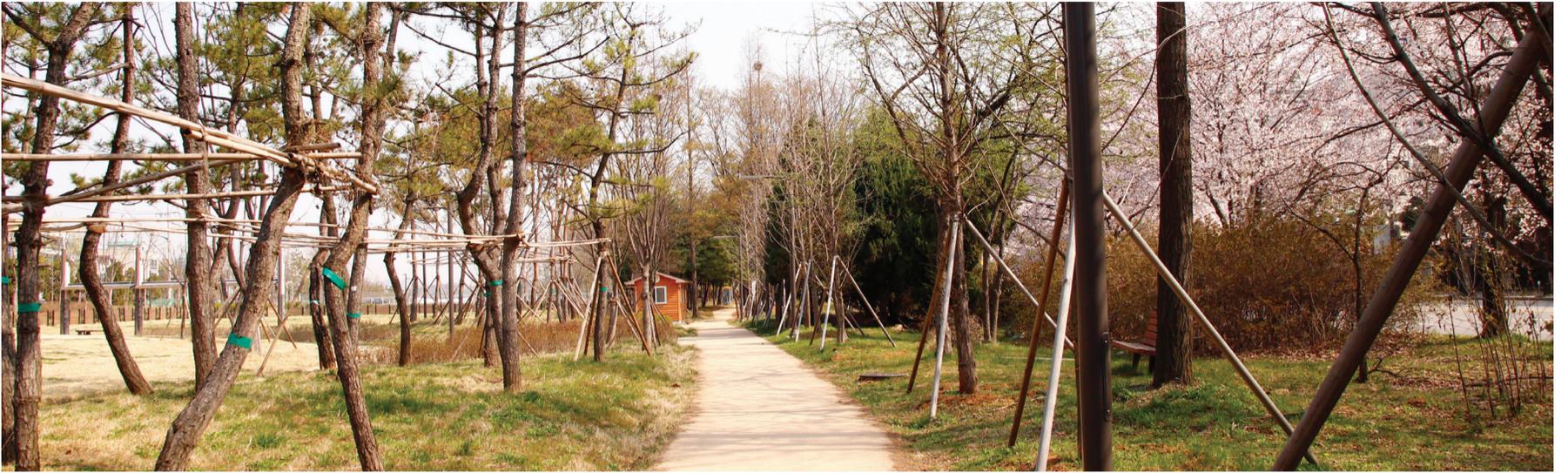
신청방법 | 장애인선거권자 성명,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의 내용으로 상기 신청처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하여 전화로 신청

지원 일시

- 사전투표기간 : 5. 4.(목) ~ 5. 5.(금) 09:30~17:30
- 선거일 : 5. 9.(수) 09:30~17:30



수인선(한대앞역~본오아파트 구간) 상부에 공원 조성한다 市 “환경피해 줄이고, 시민 소통에 도움될 것” 기대



수원과 인천을 잇는 수인선 복선전철 공사가 이제 안산과 수원 구간만 남겨 놓고 있다. 수인선 복선전철은 수원~화성~안산~시흥~인천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전체 구간 길이는 52.8km. 오이도역에서 송도를 거쳐 인천 구간이 개통됐고, 수원~안산을 잇는 20km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1년 정도 늦춰지게 됐다. 수인선 남은 구간이 모두 완공되면 수원에서 인천까지 한 시간 반 걸리던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된다.

수인선 안산시 구간(4.94km) 중 오이도역~한대앞역 구간은 기존 안산선(4호선)과 공유되며, 한대앞역~본오아파트(2.72km) 구간은 정부에서 당초 지상으로 건설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환경·교통영향평가를 마무리했던 곳이다. 하지만 소음·분진 등 환경공해와 도심구간 단절 등을 우려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설계변경을 거쳐 반지하화로 추진됐다. 그 중 본오아파트에서 용신교까지 1,996m(사리역 473m 제외) 구간 상부에

조성 중(공정율 85%)인 ‘어울림공원’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어울림공원(면적 155,800㎡)은 총사업비 130억 원을 들여 주차장 7개소, 휴양시설(전망테크, 휴게테크, 플라워카펫), 생활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배드민턴장), 부대시설(관리사무실, 화장실 3개소)을 마련한다.

안산시 관계자는 “반지하화 사업으로 조성된 어울림공원은 소음, 진동 등 각종 환경공해와 생활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철로로 인한 도시기능의 양분화를 예방하여 시민이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올 12월에는 상록구 이동 순복음교회에서 KT동안산지사 구간을 연결하는 ‘동서 지하차도’가 개통되는 등 수인선 복선전철 완공과 함께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68)
신선영 명예기자_woghk@hanmail.net / 사진 : 김진국 사진기자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주차문화 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목적’

“생활 속 불편사항을 지나치지 말고 ‘생활불편신고’로 해결해보세요”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 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p>신고지역</p> <p>▶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4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 버스정류장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자전거도로 	<p>신고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폰 신고 앱 이용하여 사진 등록 ▶사진상 주정차 위반 사실 명확한 표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 10분 이상인 사진 2매 첨부 (동영상 첨부자료 미인정)
<p>신고시간</p> <p>▶07:00 ~ 20:00 (종식시간 제외 12:00~13:00)</p> <p>▶사진 촬영한 일로부터 2일 이내 신고</p>	<p>위반예시</p>

단원구 경제교통과

불법 주정차, 도로파손, 쓰레기방치 등 생활 속 불편함을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 위치정보와 함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 중이다. 특히 원활한 차량 흐름을 막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주정차 위반에 대한 ‘스마트 폰 신고제’가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돼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생활불편신고제를 통해 접수 처리된 불법 주정차 위반 건수가 월 평균 180건, 연간 총 2,140건에 이른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정

류장,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 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제4호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다. 위반 사실이 명확히 표시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차 10분 이상의 사진 2매를 첨부해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된다. 동영상 자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점심시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를 제외한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사진 촬영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불법 주정차 위반 스마트폰 신고제’가 시민이 직접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신고함으로써 편파 단속 등의 불신을 없애 신뢰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민기초질서 의식과 준법정신이 높아져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문화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활불편신고 앱 : 아이폰 앱 스토어(App Store) 또는 아이튠즈(iTunes) / 안드로이드 폰 플레이 스토어(Play Store)

◇ 문의 : 안산시 단원구 경제교통과(031-481-6293)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박영혜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

"소통이 이뤄지는 건강한 가정 기능이 정말 중요"



안산 시민들의 건강한 가정 문화 형성을 위해 '가족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가정지원센터)가 있다. 가정지원센터는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을 상담하거나 심리검사를 진행해주는 가족 상담 사업, 아버지 교육 등 찾아가는

가족 특강을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가족 교육사업, 가족단위 봉사단을 구성하여 요양원 등에 봉사를 가는 가족 돌봄·가족문화사업,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센터는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제공하며, 미혼모에게 긴급 출산비용이나 분유·기저귀 등의 양육물품을 지원하며 아동 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친자검사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혼 한부모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 거점으로 법원과 연계하여 주거비용 중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주목할 만한 특성화사업 '생명의 기쁨! 경기도 가족사랑 프로젝트'는 중고등학생들이 한 땀 한 땀 만든 배넛저고리를 미혼 한부모에게 전해주는 참여형 재능기부프로그램으로, 생명존중과 재혼가정, 비혈연가정 등 다양한 형태가정에 대한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가족행복드림 사업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관계 개선 상담, 연령별(손)자녀 양육방법 등에 대해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가정지원센터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산시에 거주 중인 5세~7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5월 13일 13시부터 17시 까지 '한마음 가족운동회'를 진행한다. 전화나 홈페이지(ansan.familyne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영혜 센터장은 "11년 째 가족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느낀 점은 가족의 형태가 아닌 소통이 이뤄지는 건강한 가정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 문의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김희경 명예기자 kepa-korea@hanmail.net / 사진 : 김진국 사진기자

'2017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 윤종연

"광장으로 한 걸음 더 들어와 함께 만들어가자"



Q. 올해 열세 번째인데 슬로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축제의 방향성은?

올해는 삶과 시대를 다양하게 읽어내려는 시선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하나의 슬로건을 정해 공연자들이 담아내려는 이야기를 한 방향으로 맞추려하지 않았다. 또, 현장에 들른 시민이 어려운 메시지에 소외되지 않고, 축제 자체에 몰입하기 위한 배려이다. 문화예술은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를 유도해 주는 역할도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큰 슬픔을 겪은 안산에서는 아픔을 잘 보내주기 위해 상기하고 짚어보고 둘러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슬픔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희망을 얘기하려 한다.

Q. 관객이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추천 프로그램은?

안산이라는 도시와 도시민의 삶 이야기에 힘을 쏟았다. '안산리서치'를 특히 주목할 수 있다. 안산 예술단체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응옥의 패턴'은 2014년 세월호 사건에서 배제된 이주민 여성의 이야기로, 이주민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과 경계의 시선을 무용과 시각예술로 표현한다. 일본 예술가 후지와라 치카라의 '엔게키 퀘스트-안산 속 두 외딴 섬'은 안산이라는 도시를 이방인으로서 방랑하며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프로젝트다. 개막작인 창작그룹 노니의 '안안녕2017'은 길놀이 형태의 시민참여형 공연으로 세월호 참사 후 안산 시민의 삶을 되돌아보는 화합의 장이다. '거리예술플랫폼'도 눈여겨 볼만하다. 거리예술이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체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예술단체와 새로운 형태의 공연들이 등장해야 한다. 올해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팀으로는 '유기농음악극단', '젼 댄스 컴퍼니', '우주마인드프로젝트', '랄랄라', '브라스통&프리업 합

작' 등이 있고, 해외팀으로는 말레이시아 '오랑오랑 드림 씨어터' 등이 있다.

Q. '시민이 주도하고 주체가 되는 축제'라고 들었다.

2015년 축제에서 '안녕.安寧'으로 선보였던 올해 개막작 '안안녕2017'은 퍼포먼스 규모와 시민참여를 대폭 늘렸다. 400여 시민이 참여해 파쿠르, 저글링, 타악, 불꽃 등으로 펼쳐지는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어지는 안산 시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모두가 화합하는 장으로 펼쳐진다.

폐막프로그램 '길&Passage:새로운 여정'은 불꽃을 따라 배우와 시민이 함께 이동하는 퍼레이드형 공연이며, 서울예대와 전국에서 모여든 풍물패들이 장식하는 '대동 연희'는 한국음악, 연희, 봉산탈춤, 풍물난장 등으로 광장에 모인 시민을 대동(大同)으로 이끈다. 이외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완성하는 작품들도 많다.

Q. 시민과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자신의 취향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해 즐겼으면 좋겠다. 또 축제에 모인 시민들이 어떤 거리예술에 관심을 가지는지 눈여겨보는 것도 즐거움이 될 것이다. 13년 째 축제를 맞이하며 거리예술에 대한 경험이 축적돼 있는 안산 시민인 만큼 거리예술에 대해 이해하며, 광장으로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와 직접 참여하며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혁신교육지구, 안산
가르치고 인도하다

“나를 따르라”에서 “그래도 너를 지켜줄게”로 바뀐 학교



5월 15일, 스승의 은혜를 되새기는 ‘스승의 날’이다. 우리 겨레의 영원한 스승인 세종대왕의 탄생일이기도 하다. 여기서 ‘스승’은 단순히 지식이 아닌 삶의 지혜까지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요즘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들 쉽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요즘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이 시대 스승들은, 우리 가까이 있다. 생각보다 많다. 잘 찾아보면 보인다.

안산공고, 2017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종합우승

교사 · 학생 하나 돼 이룬 결실, 세계대회 꿈꾼다



2017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서 안산공고(교장 강병욱)는 8개 직종에 출전해 금메달 5개, 은메달 7개, 동메달 2개, 우수상 4개를 수상하며 종합우승을 거뒀다. IT 네트워크시스템, 제품디자인, 애

니메이션, 전기·전자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학생들은 오는 9월 제주전국대회를 넘어 세계대회 출전까지 바라보고 있다. 이끄는 교사와 따르는 학생이 하나가 되어 이뤄낸 결과라는 평가다. 4차 산업혁명 물결이 도도하게 밀려오는 지금, ‘제자들이 산업계의 동량이 돼줄 것을 바라는’ 교사들과 ‘실력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학생들을 만났다.

금메달 수상 직종과 지도방식을 설명하면.

- ◆ **임성국 학생(컴퓨터과3)**: 운영체제인 리눅스나 윈도우를 이용해 서버를 구축하거나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부문입니다. 세세하게 지도해주신 선생님 덕분에 금메달을 땀습니다.
- ◆ **황현덕 교사(컴퓨터과)**: 기본이 우수한 학생입니다. 학생들에게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졸업 후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것이 큰 목표라면, 학교 성적 관리와 기능대회 입상은 선행이 필요한 작은 목표입니다.
- ◆ **김민정 교사(디자인과)**: 애니메이션 부문은 미국에서 2년마다 열리는 세계대회 직종

으로 채택되면서 ‘3D 디지털 게임 아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0초 이내 주제에 맞춘 애니메이션을 3D로 표현하는 게 전국대회 과제인데요, 캐릭터가 주어졌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직접 디자인하도록 설명문이 제시되면서 창의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전국대회에서 1·2위 안에 들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나가는 것이 꿈입니다.

- ◆ **조재호 학생(디자인과3)**: 다른 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마우스, 모니터 화면 색상 등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 ◆ **추유종 교사(화공과·전문교육부장)**: 기능대회 출전은 평상시 가르침을 받던 교실 수업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하나씩 맡아서 운영하는 동아리에서 이뤄집니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모여 훈련하면서 사제 간에 친밀감이 쌓이고 신뢰는 더욱 두터워지는 것이지요.
- ◆ **황동호 교사(전자과)**: 공업전자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회로를 응용한 설계와 제작부문에, 어느 한 곳이라도 신호가 절단되거나 끊어지면 기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람과 비슷합니다. 소리와 모션으로 신호를 찾아내는 실력으로, 선 취업 후 동일계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론까지 겸비한 제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안산공고는 1994년 상록구 부곡동에서 개교한 사립학교로 2010년 도 경기대회 첫 종합우승 이후 매년 우승 또는 준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는, 기술인재 육성의 지역명문고다. 기계과, 전기과, 전자과, 화공과, 디자인과, 컴퓨터과에 1,279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백미란 명예기자_why0218@naver.com

김명하 부곡중 과학교사

“행동으로 말하는 아이들, 조금만 기다려 주면 돼요”

“아이들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자꾸 깨지니까 어른들이 싫은 거죠. 아이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건 우리의 문제지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으로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학생들이 어렵다고하면 선생노릇 그만해야죠.”

‘집에서 한 명 키우기도 벅찬 중학생을 학교에서 단체로 상대할’ 선생님을 상상하며 던졌던 첫 질문은 예상을 빚나갔다. 노란리본 후드티셔츠를 입고 다정한 말투로 인사하던 김명하 교사는 언제나 아이들 편에서 있는 든든한 대변자였다.

교사의 역할이란

아이들은 행동으로 모든 걸 표현해요. 그럼 교사들은 그 행동의 변화를 보고 바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아이들은 점점 멀어지는 거고, 놓치지 않고 잡아주면 다시 돌아와요. 그게 청소년들의 모미더라고요. 담임이 됐을 때 매일 아침마다 하는 일이 애들 얼굴 쪽 보면서 누가 어두운 얼굴인지, 누가 평소와 다른지 관찰하는 거예요. “뭔 일 있었냐?” 물어보고,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고... 언제부턴가 교사의 역할이 이렇게 됐어요. 예전에는 “나를 따르라”는 식이었다면 지금은 무조건 “나는 그래도 너를 지켜줄게” 인거죠.

안산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중요성은.

벽을 허무는 거라고 생각해요. 학교의 벽, 지자체의 벽, 해방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학교의 문이 열린 거죠. 지난해 처음 열렸으니 학교 구성원들의 거부감이 아직은 높을 수밖에 없죠. 계속 그 벽을 허무는 과정이에요. 또 공동의 화두는 '교육은 누구에게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필요해요.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제 목표는 '안산에서 자란 친구들이 멀리 떠나지 않고 안산이 좋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관계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투자를 했으면 조금 길게 기다려 달라"는 거죠. 학교라는 공간의 시계추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이 느리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기억의 가치'를 남기는 것이지 현재의 생산물을 남기는 게 아니거든요. 기다려야해요.

14년 교직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다면

교사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졸업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난 친구들이에요. '그때 내

가 왜 못 잡았을까. 내가 조금 더 잘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첫 부임지였던 안산고에서 12년 동안 근무했는데, 제게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하는지 알려준 건 그 아이들이에요. 힘들어서 몸부림 치던 애들, 학교를 떠난 애들, 이 들 때문에 저는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알바로 살아가던 아이, 태어난 후 엄마가 도망가 혼자 사는 아이, 그 친구들에겐 공부보다 중요한 게 삶을 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만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 못한 애가 있어요. 그 아이가 오래 기억에 남아요.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임일규 삼일초 교무부장

“정답 보다는 질문을 요구하는 선생님이 돼야”

초등학교 4학년. 늦잠때문에 아침도 못 먹고 혈레벌떡 뛰어 갔다. 친구들이 큰소리로 웃는다. 너무 정신없어 뺨뺨을 뒤집어 입었다. 얼굴이 흥당무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양복 뺨뺨을 뒤집어 입으셨다. 덕분에 모두 함께 웃었던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해마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아련한 추억.

스승의 날은 어떤 의미

1994년, 첫 발령이 안산으로 난 후 이곳에서 계속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안산이 고향처럼 느껴진다. '스승의 날은 내 자녀의 스승을 찾아가는 날이 아니라 나의 스승을 찾아가는 날'이라는 문구가 떠오른다. 제자들은 나를 찾아오는데, 나는 그러지 못해 부끄럽고 송구하다.

특별한 기억이 있다.

제가 어릴 땐, 어른들이 살기 바빠 아이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하고 아이들도 지금처럼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 표현을 당당하게 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연습 중 배가 너무 아파 눈치만 살피다 어렵게 말씀드렸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걱정스럽게 양호실에 데려다주시고, 또 중간에 오셔서 이마를 만지며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참 고맙

고 좋았다. 그때의 선생님을 떠올리며 나도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다.

찾아오는 제자들도 있다.

졸업하고도 잊지 않고 찾아올 때 정말 고맙다. 신기한 건, 담임을 맡았을 때 속 썩이던 아이들이 뜻밖에 찾아오는 경우다. 또, 얼굴은 알겠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미안한 적도 있고, 아무튼 모두 신통하고 참 고맙다.

모두에게 한 말씀

스승의 날이 언제부터가 불편한 날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 아이들에게 선생님의 말, 행동, 생각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공감하고 되새기며 생활한다.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질문을 요구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시립선부어린이집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 역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세상에 태어나 제일 처음 만나는 선생님. 먹는 것부터 자는 것 까지 엄마대신 모든 것을 어루만져주는 '어린이집 선생님'. 시립선부어린이집(원장 김영자)은 21명의 선생님과 116명의 원생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부모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에 참여하는 개방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의 연령에 맞춰 매생이, 보리빵, 전복죽처럼 제철 토종 음식을 준비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인성교육, 책임기연계 수업, 식습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

고 있다. 또한 '아이들에게 교육하면 부모가 달라진다.'는 슬로건으로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간접현연 줄이기', '에너지 절약' 등의 가정연계 프로그램을 운영. 지난해 보육진흥원 대상을 받기도 했다. 직접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 준다는 김영자 원장은 "교육은 가르치는 사람 역시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 배움이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진다고 생각해 아낌없이 지원한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선생님이면서 엄마이자 아빠이다. 자식 같은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민미정 주임교사는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힘든 아이도 있다. 처음에는 통역기를 준비해서 대화를 시도했지만 기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바라보고 쓰다듬어 주는 것'이었다. 이제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애정을 표현한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이다."라고 했다.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세월호 3주기 기억식



2만 명 참석... “회복의 첫걸음을 안산에서 시작해야”



사회, 3년의 시간을 스케치한 동영상을 관람한 후 이소선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다. 그리고 ‘찬우 아빠’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나와 “긴 시간이 지났지만 밝혀진 진실은 없고 은폐와 왜곡된 거짓들이 그대로 남았다. 하지만 국민들이 있었기에 세월호가 마침내 물으로 올라왔다. 참사 이전과는 다른 회복을 이뤄내야 하며, 안산에서 시작돼야 한다. 416안전공원 건립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 미수습자를 수습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 불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함께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3년 전 우리는 304명의 참담한 죽음 앞에 절망했고, 작동되지 않았던 무능한 안전관리 체계에 분노했다.”며 “진상을 밝혀내고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억해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안산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416안전공원은 시민들과 협의해 훌륭하게 잘 조성하겠다.”며 “인권을 넘어 모든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 서로 다름이 존중되는 사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19대 대통령 후보들도 참석해 진상규명과 9명의 온전한 수습을 약속했으며, 전 위원장은 후보들을 무대 위로 불러 다시 한 번 다짐을 확인했다.

가수 안치환의 추모공연을 마지막으로 오후 5시쯤 기억식은 끝났다. 하지만 수많은 추모객들은 조문을 위해 남아 합동분향소 앞으로 끝도 없이 긴 줄로 이어졌다. 덕분에, 미안했던 마음은 조금은 덜 수 있었던, 4월 16일의 해가 지고 있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비가오지 않았던 세월호 3주기 기억식. 세 번째 봄, 화랑유원지에 노란리본만큼 슬픈 벚꽃이 뒤덮이던 4월 16일, 합동분향소 주변은 노란빛들로 채워졌다. 노란 꽃, 노란 피켓, 노란 옷과 수건 등 전국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기 위해 모였다. 준비된 의자가 부족해 선 채로 지켜봤다. 2만 여명의 시민이 합동분향소 공터를 가득 채웠던 그 날.

오후 3시 정각, 안산 전역에는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1분간 울렸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묵상으로 기억식의 문을 열었다. 박혜진 아나운서의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청소년만민공동회

세 번째 봄, 세월호 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세월호는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최현호 학생은 “참사 2주전에 똑같이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기 때문에 많이 놀랐다.”며 “낮익은 얼굴들과 장소가 TV에 나와 많이 힘들었다.”고 고백했다. 서예원 학생은 “그 당시 친언니가 고2였는데, 그 배에 우리언니가 타고 있다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슬펐다.”며 “다행이란 생각도 들면서 미안한 마음에 추모식에 올 때마다 우리 언니나 오빠라는 생각으로 기도한다.”고 울먹었다. 김제동 씨는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해줘서 고맙다.”며 “여기 모인 것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공감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참사 이후 사회에 대한 따끔한 시선과 함께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도 눈에 띄었다. 김예찬 학생은 세월호 참사를 ‘경제적 이유와 부정부패를 이유로 톱니바퀴가 벗어나 시간이 멈춘’ 사건으로 비유했고, 소한결 학생은 언론의 오보를 지적하며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전했다. “절망의 세월호가 아닌 정의의 세월호” “하나의 사건이 아닌 한 명 한 명에게 일어난 304개의 사건” “우리가 품고 있는 기억들이 세월호를 끌어올렸다” 등등 그들의 거침없는 이야기들은 수많은 공감대를 만들었다.

공감하며 경청하는 ‘어른 김제동’ 앞에서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요”를 외치며 손을 들었고, 예정된 시간은 훌쩍 지났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김제동 씨, “이 땅에 사는 마흔 넘은 어른들은 여러분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입 다물고 살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통해 여러분의 말과 하늘에 있는 선배들의 말이 들려질 수 있는 도구가 되면 좋겠다. 여러분을 위해 원가 하겠다고 감히 말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 세대가 만든 장애물들은 꼭 치워놓고 가겠다. 한없이 미안하고 자랑스럽고 고맙다. 밥 잘 먹고 다니라.”

매일 아침 마주치는 교복 입은 아이들 가방에는 1년 내내 노란리본이 나비처럼 펼쳐진다. 벚꽃이 한창이던 3년 전 4월, 수학여행을 가던 250명의 또래들이 바다 속에 가라앉았다. 이를 목격한 세월호 세대에게 4·16은 어떤 의미일까. 이들에게 비친 한국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참사 3주기였던 4월 16일, 합동분향소가 있는 화랑유원지 대공연장에서 ‘김제동과 함께하는 전국청소년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일요일 아침부터 전국에서 모인 1,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세월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 모였다. 손에 든 노란 바람개비는 휘날렸고, 가슴에 핀 꽃잎들은 유독 반짝였다.

방송인 김제동 씨는 시작하자마자 바로 청소년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처음에 망설이던 아이들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 서로 발언을 위해 손을 드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마이크를 드는 것조차 미안해하던 청소년들이 오래 품고 있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을 꺼내 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gmail.com

제95회 어린이날 축제 '오월애(愛)나라'

호수공원 중앙광장... 볼거리 · 즐길거리 풍성



5월 5일 제95회 어린이날을 맞아 안산 호수공원 중앙광장 야외무대에서는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축제 '오월애(愛)나라'가 열린다. 푸른 5월의 하늘만큼이나 푸르른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축제에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어린이날 기념 퍼포먼스를 소개하고 사전 신청과 접수가 필요한 프로그램 안내를 시작으로 오전 10시 축제의 막이 오르면 난타와 버블 쇼 등 신나는 축하 공연이 줄을 잇는다. 오후 4시까지 계속되는 이날 축제에 오면 아이들의 예술적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하는 퍼포먼스 스토리 공연, 사물놀이,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 공연을 만날 수 있다. 또 20개의 체험부스에서는 어린이들의 정서발달과 예술성 개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안산의 어린이라면 누구라도 환영이다. 점심시간을 제외한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어린이들의 즉석 장기자랑과 온 가족이 참여해 가족 간의 애정과 협동심을 키우는 게임이 이벤트로 진행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가족동요대회도 마련돼 동심이 들려주는 예쁜 노랫말의 동요를 즐길 수 있다. 안산시 여성가족과 전복희 과장은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날 축제 오월애나라에 안산의 모든 가정이 나와서 즐기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문의: 안산시 여성가족과(031-481-230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지역주민을 위한 '우리동네 학습공간'

안산화정영어마을과 연계... 원어민 영어 강좌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 프로그램이 초지작은도서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개강한 이번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열린다. 개강 전 사전 모임을 통해 수강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강좌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현재 12명이 강좌를 듣고 있으며, 원어민인 호주 출신의 스티링 아산(Sterling Ah San) 씨가 기본적인 안부 인사와 날씨 등을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듣는 모서리(원곡동, 39세) 씨는 "영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거 같아요. 초지작은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곳에서 원어민 강좌가 열린다고 해서 친구와 함께 듣게 됐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당황

해 말을 못하는데, 자연스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온 구현재(원곡동, 38세)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 영어를 하고 싶고 해외여행을 가게 된다면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서 배우게 되었는데 참 재밌습니다." 라고 말했다. 대부분 수강생들은 "한가한 시간대에 집과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만족스럽다."며 반겼고, 주민들도 "우리동네 학습공간을 잘 활용한다면 틈새시간에 학습할 수 있어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산시평생학습원(원장 김남림)이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안산화정영어마을과 연계한 사업으로 자주 접하기 어려운 원어민과 함께 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비전센터(2월 6일 개강), 굿퍼닝 평생교육원(3월 22일 개강), 초지작은도서관(3월 24일 개강)에서 각각 강좌가 열리고 있다. 안산시 평생학습과 관계자는 "우리동네 학습공간 프로그램은 유휴시설과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배움을 통해 이웃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문의: 안산시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031-481-38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책 읽는 안산 / 4월 두 번째 추천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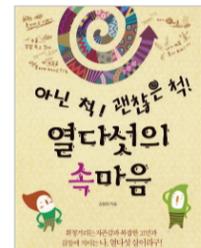
이달의 주제 『내 마음을 부탁해!』



자존감은 나의 힘

저자 양선아 / 출판사 명주

이 책은 학교와 학원을 오가느라 자기 성찰의 시기인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한다. 특히 따돌림, 폭력, 우울증, 자살 등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이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치유하도록 인도해 긍정적 사고, 도전하는 정신 등 자존감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아울러 갑작스럽게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맞닥뜨린다고 해도 굳건한 자존감만 있다면 헤쳐 나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아닌척, 괜찮은척! 열다섯의 속마음

저자 김현정 / 출판사 팜파스

이 책은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 불안하기만 한 열다섯 살 사춘기 아이들의 속마음을 들여다 본 마음 처방전으로 휘청거리는 자존감, 애매하고 불안정한 상황과 갈등 사이에 치이는 십대들을 다독인다. 이 책에는 사실은 진짜 털어놓고 싶은 고민과 속마음이지만 애써 숨기려 했던, 누구나 한번쯤 겪어봤을 성장통과 고충들이 담겨져 있어 공감을 더한다.



마음을 실험하다

저자 강서울 / 출판사 슬로래빗

네이버 20Pick 인기 연재 <소소한 심리학>을 보강하여 만든 책이다.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려운 심리학 이론이나 다양한 심리학 용어, 개념을 다루는 책은 아니다. 외려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했던 것들을 심리학 실험에서 찾아본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거나 지나쳤던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실험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사람의 마음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



기획초대전 '쓰리 워크스 온 쇼(Three Works on Show)'

봄의 끝자락에서 예술의 향기에 취하다

정문규미술관(단원구 대부항금로 153-9)에서는 4월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올해 첫 번째 기획전 '쓰리 워크스 온 쇼(Three Works on Show)'를 연다.

중견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창겸(영상), 조병섭(설치), 박용남(조각) 작가를 초대, 제1,2전시실에서 '워터새도우(WaterShadow)', '생각쌓기', '어레이(Array)'란 타이틀로 각각의 개인전을 기획했다. 다양한 장르와 재료, 믹스 미디어(Mix-Media) 작품을 들여다 보면 영상, 조각, 설치미술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4월 28일(금) 오후 5시에 오픈 행사를 한다.

김창겸 작가의 '워터새도우 인 더 디쉬(WaterShadow in the dish)'는 집 근처 산을 오르다 마주한 작은 연못에서 모티브를 가져왔다. 맑고 잔잔한 물이 내 모습과 나무와 하늘을 비춘다. 돌맹이를 던지면 물에 비쳐진 영상은 깨어지며 일렁이다 다시 고요하게 돌아온다. 그 모습을 접시에 담았다.

조병섭 작가의 작업은 놀이와 예술을 함께 보는 시점에서조차 아주 견고하다. 재료나 구조가 아닌 공간의 진실함이 모자람을 잊은 채 시간의 너울을 타고 있다. 그렇게 그의 머릿

속에서 나비였을 조각은 사슬 없는 공간의 빛으로 머문다.

박용남 작가는 우연히 책을 보다가 바다해조류인 우뚝가사리 씨앗을 확대한 사진을 보게 된다. 수없이 확장하는 듯한 연결망이 마치 뇌세포의 구조(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구조)를 연상케 한다.

정문규미술관은 실력 있는 미술가들의 전시공간이자 공연장 문턱이 높아 공연 기회가 없는 유망한 음악가들의 무대가 되고 있다. 연주회는 주로 토요일 6시에 열리며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오는 5월 13일에는 소프라노 김혜진, 테너 유상연, 바리톤 정순식, 피아노 김예지의 '라 벨라 칸초네(La Bella Canzone)'를 연다.

1층 갤러리 카페 '아르페지오네'에서는 커피도 즐길 수 있다.



◇ 문의 : 정문규미술관(032-881-2753, www.chungmuseum.org)
신선영 명예기자_woghkah@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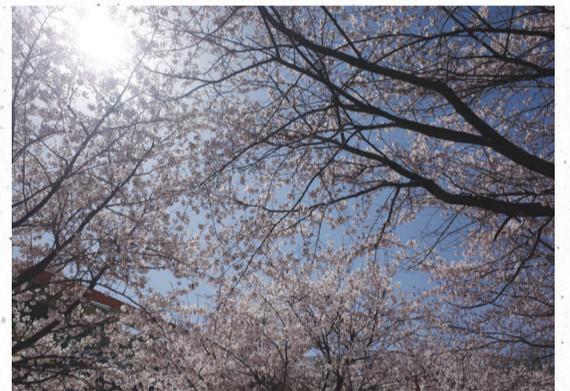
유난히 벚꽃이 많은 도시 안산. 그 중에서도 '인생 샷' 찍기 딱 좋은 네 개의 길을 소개한다. 이미 알려져 있는 곳도 있지만 새로이 명품 길을 발견했다. 햇볕 좋은 날, 기분까지 밝아지는 벚꽃을 배경으로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찍고 오는 것은 어떨까?

1. 어느 각도로 찍어도 화보! 부곡공원 벚꽃동산
부곡공원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부곡동으로 넘어오는 길부터 부곡동 구석구석을 에두르고 있는 곳이다. 봄마다 하얗게 장식되는 안쪽은 도로가인 입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구불구불한 산책로 양옆으로 온통 벚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서 어떤 포즈를 잡아도 화보가 된다. 2013년 빛나무 130주를 심어 조성한 벚꽃동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안산의 명소다. 단, 나들이를 가고자 한다면

주말은 피하는 게 좋겠다.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벚꽃만큼 만개했을지 모르니.

2. 다시 돌아올 것 같은 화랑유원지 단원 소생길
화랑유원지에는 2015년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만든 생명길이 있다. 마치 학생과 선생님들이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봄이 되면 이 길 따라 벚꽃이 만개한다. 그래서 벚꽃에서 더 빛이 나는 듯하다. 결코 짧지 않은 이 길을 따라 촘촘하게 피어있는 벚꽃터널에서 사진 몇 장 남겨두고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도 좋겠다. 아직 희생자들에게 아무 말도 걸어보지 못한 시민들이 있다면, 잠시 들러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

3. 공원 곳곳이 벚꽃 길 노적봉공원 오르막 길
높이 뻗은 빛나무가 벚꽃을 한아름 떨군다. 마치 커다란 벚꽃 성에라도 온 기분이다. 오르막길을 오르며 찍는 사진은 분위기를 살리는데 제법이다. 게다가 노적봉폭포는 최근 공사를 마쳐 진짜 바위를 타고 내리는 폭포를 구경하기에도 좋다. 공원 곳곳, 벚꽃은 물론 새순이 돋는 어린 나무들과 종류를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꽃들도 만개했다. 단, 주말에는 사람이 많으니 잘 피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어두워져도 색다른 매력이 있으니 평일 저녁



산책도 추천한다.

4. 한적해서 사진 찍기 좋은, 나만 아는, 초지역 뒤 썰매장 앞 길
초지역 뒤편 인적 드문 곳에 벚꽃길이 있다. 밖에서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보석을 발견한 듯 기분이 좋아지는 벚꽃길이 나온다. 길을 온통 점령한 채 사진 찍을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짧지 않은 길을 따라 벚꽃이 줄지어 서 있다. 벚꽃이 만개한 이 시기에 가기 딱 좋다. 여기에 갈 때는 제법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들고 가자. 진짜 '인생 샷'이 나올지 모른다.

유가희 명예기자_425170@naver.com



4월 10일 안산시의회 청소년의회 위촉장 수여식 후 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는 참여 학생들과 시의원들의 모습

안산시의회, '청소년 의회' 운영

지역 중학생 21명 선발... 11월까지 의사일정 소화

의회 “청소년들,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안산시의회(의장 이민근)가 지역 학생들이 '청소년 의원'으로 참여해 의사일정을 꾸려나가는 '안산시 청소년 의회'를 출범시켰다. 4월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안산시 청소년 의회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의원으로 선발된 지역 중학생 21명이 참석해 자신들의 멘토 역할을 할 시의원 21명과 상견례를 하고 의원들로부터 각각 위촉장을 받았다.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과 입법 활동 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청소년 의회 구성을 추진한 의회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지역 각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청소년 의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추천받아 서류 심사 등을 통해 21명을 선발했다.

참여 학생 상당수가 각 학교 학생회 출신이며, 정치인부터 검사, 여행작가, 방송국 피디

(PD)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래희망을 가진 학생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토의와 지역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제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스스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타 시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는 이날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원구성과 조례안 발의 등 실제 의회 운영 방식과 동일하게 청소년 의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를 마련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정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5월 12~14일,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개최

“반려동물, 우리 가족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풍성'



약 1만5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되는 '2017 경기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이 안산에서 개최된다.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단원구 초지동 소재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사단법인 '유기견없는도시'가 주최하고 (사)반려동물참문화협회 (주)펫케어 (주)이슈타임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 경기도가 후원했다.

반려동물 문화 조성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경기도를 포함해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직접 참여

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교실을 운영, 반려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의 이해를 돕는 '문화학교', 영·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생명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생명사랑 교실', 퀴즈를 풀며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도전 골든벨', 온 가족이 참여하는 '가족운동회' 등이 마련됐으며, 방송인 김제동 씨가 진행하는 토크콘서트도 있다. 더불어, 유기견 입양 캠페인도 전개하며 동물보호 시스템에 대한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부대 프로그램도 있다.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1 상담이나 수제 간식 만들기, 독 스포츠 체험 등이 그것이며, 전용 놀이터, 유기동물 사진전, 반려동물 행복 사진전 등 상설 전시공간도 갖춰져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반려문화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를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계기와 함께 동물생명존중을 통한 따뜻한 세상 만들기의 기초가 마련될 것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유기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안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모범적인 반려생활을 선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행사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하루 1만5천 원의 입장료를 받았지만 올해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진행한다.”며 “행사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문화가 확산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문의 : 경기 반려동물 축제 031-481-8599

독자
기고

"우리 아파트의 잉클킴 아저씨를 소개합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아저씨는 단지 내 주민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인기가 짱'이다. 학원에서 영어교사로 20년 넘게 재직하다가 퇴직하신 영어 전문가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갈 때, 혹은 놀러 다니던 아이들이 경비실 앞을 지나칠 때마다 유창한 영어로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분이요, 또, 아이들이 영어로 말을 걸어오면 함께 받아주며 농담도 잘하시는 분이기에 때문이다. 심지어 어느 학생에게는 영어공부 요령을 가르쳐 주기도 했고, 그 아이의 학부모는 "아이 성적이 올라갔다."며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가기도 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아이들 사이에서 경비실 아저씨는 '영어선생님', 혹은 '잉클 킴'이라는 닉네임으로 통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저씨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관리실에 알아 보기도 하고 다른 주민들로부터 귀동냥을 해보기도 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다. 1주일 전쯤 '잉클 킴' 아저씨는 한 입주민에게 저녁 8시30분경 인터폰을

통해 "경비실에 보관하고 있는 택배를 찾아가라."며 연락했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폰을 받은 주민이 다짜고짜 "지금 몇 신데 전화냐, 당신은 잠도 없느냐, 시간개념도 모르냐, 무슨 경비가 이렇게 생각이 없냐?"며 막말을 퍼붓더라는 것이다. 순간 아저씨는 "갑질때문에 자살했다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며 "이러다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싶어 당장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다. 아파트 단지 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잉클 킴 아저씨 좀 다시 보게 해 달라."며 부모들을 보채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학부모들과 관리실이 나서서 잉클 킴 아저씨에게 다시 근무해 달라고 사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하던 아저씨가 다시 돌아올 계획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막말을 했던 주민도 정중하게 사과했음은 물론이다. 모든 게 다 잘 마무리되어 다행이었고 우리 아파트는 다시 친절하고 따스한 마음이 흐르는 공동체가 되었다. 덕분에 다들 기뻐했다. 서로 웃고 이해하며, 양보하고 존중하는 사회. 안산의 이웃들은 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 김석원(단원구 고잔동)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판매

주택가격의 70%까지...
30년 장기, 고정금리 적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한다. 한도액이 3억 원인 보금자리론과 2억 원이 디딤돌대출 두 가지다. 두 상품 모두 10~30년의 장기 대출로 금리 변동 없는 고정금리며,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등을 받지 않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이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3년 이내 처분조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 기준 무주택자, 주택가격 5억 원, 면적 85㎡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기간 및 소득 금액 등에 따라 2.25%~3.15%까지 다양하며,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가구, 신혼가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우대정책도 마련돼 있다. 단,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금리가 1.8% 이하인 경우에는 1.8%를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3년까지, 최대요율 1.2%가 잔여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돼 감소하는 방식이며 인지세의 50%는 본인 부담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상품설명서(약관)를 참조하면 되며, 신용평가 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중부지사(전화 1688-8114)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추천하는

건강 먹거리

4월

도다리



도다리의 효능

- 다이어트 효과 :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며, 노화 방지 비타민 E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 동맥경화 예방 및 시력보호 : 필수 아미노산과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 동맥경화 혈전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비타민 A가 풍부해 시력보호에도 좋습니다.

도다리 고르는 방법

- 몸통에 비늘이 단단하게 붙어있고 윤기가 있으며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좋다.

비슷한 광어와 도다리 구분하는 방법

- '좌(左)광 우(右)도' 광어는 눈이 왼쪽에 있고, 도다리는 오른쪽에 있다. 이때 사람처럼 배가 앞을 보게하고 구분하면 된다.
- 광어의 몸체는 타원형(○)이고, 도다리는 마름모형(◇)이며, 광어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고 도다리는 없다.

새살오른
봄 도다리!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세요.



특별
기고

차별화된 철도역세권 정비로 도시 명소 만들기



안산시의 철도역사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3월, 경기 내륙의 철도교통 요지이자 농산물 집산지 역할을 하던 수원과 우리나라 농산물을 일본으로 운송하던 항구도시 인천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된 수인선부터 시작됐다.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인선은 일반적인 철로와는 달리 협궤열차가 운행됐으며, 그 기능적인 면에서 '수탈의 열차'로 불렸다. 광복 이후 1960년 초까지 수인선은 15개 역을 하루 평균 7차례 왕복 운행했으며, 1995년 12월 31일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58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이후 그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인구를 서울 주변지역으로 분산시키고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킨 수도권 전철4호선(안산선)은 안산시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되었으며, 안산시민들에게는 늘 친숙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기 확정된 수인선(2018년 개통예정)과 서해선의 일환인 소사~원시선(2018년 2월 개통예정)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16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확정·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의 신규 사업으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신안산선 그리고 지역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을 위한 화성 어천연결선 인천발 KTX의 안산 초지역 정차가 확정돼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은 안산시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교통요충지로 발전할 계기

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한층 더 증진될 것이고, 신규 역사와 그 주변지역의 철도역세권 정비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역세권에 대한 지속가능한 계획적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철도역세권 정비로 도시의 명소 만들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철도역세권이 새로운 중심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지역의 명소, 매력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도시문화의 중심과 교류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역세권과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보행 친화적 공공 공간들이 광장, 공원, 공공시설 등과 잘 연계되어야 한다. 둘째, 수준 높은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지역명소가 되어야 한다. 철도역사 건물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디자인을 통해 도시환경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특히 지역 명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화산업 및 도시 기능과 연계하고 시민이 자주 찾는 활동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하여 지역 브랜드를 설정하고 지역 이미지 마케팅 전략을 통해 명소로 인지되어야 한다.

과거 사업성 위주의 개발논리에 따르는 기존의 역세권 개발보다는 안산시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차별화·특성화된 안산시의 명소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철도역세권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박명준

특별
기고

사이버 학교폭력(왕따·괴롭힘)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



사이버 학교폭력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우리 시대의 숙제이기도 하지만, 지구촌 모든 국가들에게 당면해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사이버 학교폭력이 해결되어야만 국가의 미래가 밝아지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학교폭력 및 사이버 학교폭력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학교폭력 건수는 24,709건에서 2015년에는 19,969건으로 3년 새 19.1%감소했다. 반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2015년에는 1,462건으로 3년 만에 6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가 원인은 사회관계망(SNS)이나 스마트폰의 기능 진보와 인터넷 공간상 카카오톡(Kakao Talk)이라는 스마트폰 어플이 등장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접근성이 높아 365일 언제든지 친구들 또는 집단의 교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은 참담한 사고로 이어진다.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7시경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린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5년 5월 14일 오후 9시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도 14세 여학생이 10층 자신의 방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숨졌다.

이와 같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인권, 생명존중, 예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 발생 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피해 학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심리치료, 피해학생 회복프로그램을 통하여 보호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2 ~ 2015년 학교폭력 및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 (자료출처 = 교육부)

년도/분류	12년	13년	14년	15년
전체 학교폭력	24,709	17,749	19,521	19,968
사이버 폭력	900	1,082	1,283	1,462

●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전영태



천식이란 무엇인가?



천식이란 폐 속으로 공기가 통과하는 통로인 기도(氣道)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겨 예민해진 상태를 말하는데, 이 경우 대기 중에 있는 자극물질에 의해 쉽게 과민반응이 일어나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기도가 좁아져 숨이 차게 된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호흡곤란, 기침, 천명(쌩쌩거리는 소리)이며, 반복적·발작적으로 일어나고 밤사이와 이른 새벽에 특히 심하다.

기관지 수축이 미약하면 호흡곤란보다는 마른기침, 가슴이 답답하거나 불편한 흉부 압박감 정도를 호소하지만 기도경련이 심해 완전히 막히면 천식발작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유전적 요인이 있으니 집안 내력을 살펴야하며, 대표적인 악화요인으로는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동물의 털, 감기, 담배연기, 황사,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특히, 미세먼지가 중요하고 심한 일교차도 역할을 한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고 가랑가랑하는 숨소리가 들리거나 기침이 발작적으로 일어나 잠을 깬 적이 있다면 천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또한 운동 중에 혹은 운동 직후에 숨이 차고 마른기침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특별한 원인 없이 기침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

천식은 거의 평생 관리해야 한다. 방치하면 기관지가 점차 좁아져 영구적인 합병증이 생기며, 만성적이고 재발이 잦은 질환으로, 증상조절과 폐 기능 유지를 위해 꾸준히 치료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행히, 일상생활의 불편 최소화는 물론 삶의 질도 좋아지고 합병증도 예방 되는 완전 치유와 같은 상태로 관리 될 수 있다.

◆ 증상 예방을 위한 천식 환자 생활 수칙

1. 감기 등 호흡기 감염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독감 예방주사는 꼭 맞는다.
2. 황사가 심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 외출을 삼간다.
3.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갑작스럽게 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침구류는 자주 세탁해 햇볕에 말리고 카펫, 커튼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5. 담배연기를 피하는 것은 물론 냄새가 날 때는 환기시킨다.

● 이호준_더베스트내과 대표원장(현 안산시의사회 회장)

안산시체육회 & 건강공단 '가족과 함께 하는' 야간운동교실 운영



바쁜 생활로 운동이 어려운 안산시민을 위해 '야간운동교실'이 열렸다. 운동이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 자연스럽게 성인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거지역과 가까운 공원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열린 건강 체육 프로그램이다. 2010년도에 시작되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운동교실은 안산시체육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계해 추진하며, 올해는 4월 1일 시작돼 10월 31일 까지 운영된다. 운동교실에 참여하면 경쾌한 음악에 맞춰 진행되는 에어로빅, 스트레칭, 새천년 건강체조, 다이어트댄스 등을 자연과 함께하는 야외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운동교실이 열리는 시간은 저녁 8시~9시로, 호수공원, 이동공원, 시냇운동장, 은하수공원, 감골운동장, 노적봉폭포 등에서 요일별로 진행된다.

야간 운동교실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는 추지영(사3동, 43세)씨는 "저녁 먹고 나와서, 신나게 운동하고 씻고 자면 딱 이죠! 바람도 시원하고 자연도 느낄 수 있고, 동네 분들과 친분도 쌓고, 음악에 맞춰 즐겁게 운동하면 시간가는 줄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상록수보건소 건강 체육 야간운동교실 담당자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참여해 운동을 습관화 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참여했다가 덕분에 체중감량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신청하시면 운동교실 스케줄 안내문자도 보내드리니,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장 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장 소	운영요일	운영시간
호수공원	월, 수, 금	20:00 ~ 21:00	성포공원	화, 목	20:00 ~ 21:00
이동공원	월, 수		성호공원	화, 목	
시냇운동장	월, 수		용하공원	화, 목	
은하수공원	월, 수		반월공원	화, 목	
감골운동장	월, 수		대우7차앞	화, 목	
노적봉폭포	월, 수		수변공원	화, 목	

◇ 문의 : 상록수보건소(031-481-5945)
김희경 명예기자_kepa-korea@hanmail.net

식중독 세가지만 기억하자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봄, 즐거운 나들이에 나섰다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가지만 기억하세요!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요리 전, 후로 흐르는 물에 20초 손을 씻고 2시간 이상 실온에 방치했을 경우 익혀먹고,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 참 쉽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신청 하세요.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돌봄"을 위하여 안산시에서 지원 합니다.

- ◆ 신청대상 : 전국가구 기준중위 소득 80%이하 임산부
- ◆ 신청장소 : 등분상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문 의 : 상록수보건소 (031-481-5930)
단원보건소 (031-481-3493)

